

송암교회 말씀묵상

- 이달의 찬양 -

나의 백성이

Tom & Robin Brooks

(원제 : 이 땅 고치소서)

윤네이션스 역

7. 나의 백성-이 다 경배하여 내게기도하며 -
 2. 무릎 꿇고 다 경배하여 주께기도하리 -
 나의 영광-을 구하여서 그 악한것떠나면
 주의 영광-을 구하여서 그 악한것떠나면
 하늘에서든 -고 죄를 사 하 며
 주님의 자비 -로
 그-들 의악 -을 고 치 리-라
 주님의 자비 -로 잉 하 소-서
 아 버 지여 - 고 쳐 주 소서 -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 소-서
 주 하 나님 간절히기도 하 오니 -
 상 한 이 땅 새 롭게하-소-서 -

2022년 10월 31일(월)

짧은 시간이라도

찬송 502장

사도행전 26:24-29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29절)

바울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립바 왕 앞에서 자신의 부활 믿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총독은 미친 소리라고 일축했고, 왕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울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공고히 섰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미친 소리’하고 일축하는 베스도 총독과 같을 때가 있고, 자신이 알고는 있지만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그립바 왕과 같이 불신의 마음으로 일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바울과 같이 자신 있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짧은 순간이라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리스도인으로 권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겠습니다.

- 질문 : 나는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살고 있나요?

- 기도 : 주님, 무지와 불신을 버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아멘

2022년 11월 1일(화)

가짜가 진짜에게

찬송 459장

예레미야 29:24-32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 줄 때에”(29절)

스마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사이에서 거짓예언을 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레미야를 오히려 “거짓 예언자”라고 말하며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가짜가 진짜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줄 때 “거짓 예언자 스마야를 벌하시겠다”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하였습니다. 누가 진짜 예언자인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결국 성전 감독자인 스바냐 제사장은 가짜가 진짜를 헐담할 때 분별력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혼미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꼭 필요한 시대임을 기억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갑시다!

- 질문 : 거짓 교사들이나 잘못된 진리에 빠져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들을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 기도 :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진리 안에 서게 하소서. 아멘.

2022년 11월 2일(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송 322장

예레미야 25:15-32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32a)

예레미야는 세계 만민이 받게 될 ‘진노의 포도주 잔’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동서남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바벨론입니다.

고대사회에서 나라 간에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간주되어 전쟁에서 이기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 이기는 것이고 전쟁에서 지면 그들의 신이 패망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멸망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유다 민족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 민족과 왕들도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모든 예언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 질문 : 지나온 역사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이야기 있다면 나눠봅시다

- 기도 :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2022년 11월 3일(목)

참된 예언자, 예레미야

찬송 249장

예레미야 26:1-15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1절)

예레미야가 성전 뜰에 서서 예배하러 오는 모든 백성을 향해 예언하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성전을 파괴하실 것이라고. 제사장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예언을 듣고, 분노하며,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일전에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같은 예언을 했다가 여호야김 왕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때마다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목숨을 위협당했습니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백성을 살리기 위해 쓴소리를 세상에 전해야만 했던 예언자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 질문 : 우리의 이웃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어떤 쓴소리를 세상에 전해야 할까요?
- 기도 : 주님,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기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바라게 하소서. 아멘.

2022년 11월 4일(금)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

찬송 420장

디모데후서 2:14-26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22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말다툼을 피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말다툼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성도를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이 팔리게 합니다. 그것은 서로 간에 시기와 분쟁과 비방, 악한 의심을 조장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 ‘피할 것’과 ‘따를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피할 것은 “정욕”입니다. 사람 누구에게나 일어날 법하지만 바울은 주님의 일꾼인 디모데가 정욕을 피하여 교회 공동체를 잘 지켜나가길 바랐습니다. 바울은 그뿐만 아니라 따라야 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의, 믿음, 사랑, 화평”을 좇는 삶입니다. 이는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질문 : 내가 주님 앞에서 피할 것과 따를 것은 무엇인가요?
- 기도 : 주님, 주님의 거룩하심을 좇아 우리도 거룩함을 사모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찾는 자들 되게 하소서. 아멘.

2022년 11월 5일(토)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찬송 254장

예레미야 31:21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풋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많은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몇 안되는 남은 자들이 황폐해진 이스라엘 땅에서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의 탄식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려 하십니다.

잘못을 깨닫고 고난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새롭게 살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정표를 세우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정표가 가리키는 방향은 ‘네 성읍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본래 살고 있던 성읍들이며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세워야 할 것은 단순히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전 존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돌아오는 회복입니다.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돌아오라’ 말씀하시며 회복시키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의 전존재를 돌아켜야 합니다.

- 질문 :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 기도 : 주님, 고통 가운데 있는 저희를 구원하소서. 저희의 전존재가 주님의 임재안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2022년 11월 6일(주일)

원한을 풀어주리라

찬송 8장

누가복음 18:1-8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7절)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이 때 한 비유를 드셨는데,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끈질긴 간청에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기도를 잊을리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잃고 기도를 멈추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가는 시대 속에서 믿음 마저 점점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 요즘입니다.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주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기도를 계속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입니다. 사랑하는 식구와 교회를 위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 질문 :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나요?
- 기도 : 주님,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